

2022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추가공모) 지원결정 세부내역

최종 선정자 없음

■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추가공모)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5월 26일(목) 14:00 ~ 16: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2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및 심의기준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은 참여하는 문학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학집필공간(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문학작품의 생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추가공모) 사업에는 총 3단체가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심의에는 다양한 문학 분야, 지역, 연령, 성별을 지닌 5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심의는 사전 검토와 대면 심사 회의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심의위원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학집필공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져 묻고자 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집필공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상적인 문학집필공간의 조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토론하면서, 문학집필공간에 입주할 참여 문인의 심정과 눈높이로 문학집필공간 지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인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40%), 운영 차별성(40%),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하여 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숙고하였습니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추가공모 선정에서는 지원 단체를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에 적합한 문학집필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문학집필공간에 참여할 문인들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 볼 때, 기본적으로 안락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한 집필공간과 제반 여건,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문학집필공간 운영에 있어 숙박 시설과 같은 집필실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풍부한 운영 경험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속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자체적인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합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소회 및 당부사항

팬데믹 상황에서 문학집필공간운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해주신 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 미선정 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장기적인 계획 및 방향성을 갖춘 단체에 지원하여 문인들에게 편안한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다음 공모에는 더 많은 단체들이 충실한 계획안으로 지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